시·도 소식

서울특별시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 인증현판 부착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에 적극 참여하는 음식점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인증현판을 부착해 주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음식점 1,700개소가 식재료 원산지 표시품목 자율확대를 시행 중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지만 자율확대 표시제 참여 음식점들은 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시는 우선 여건이 양호한 한국음식점과 300㎡ 이상 대형음식점 및 오리·추어탕 등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키로 하고 지난 4월부터 노력한 결과, 현재 약 1,700개 음식점이 자율확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율확대에 적극 참여하는 음식점에는 연내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해 심사를 거쳐 인증현판을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최근 10년새 경기도내 축산농가 70% 감소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사이에 경기도내 축산농가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4일 도에 따르면 1998년 4만6천250가구이던 도내 축산농가는 지난해말 1만3천755가구로 70%인 3만2천495가구가 줄었다.

특히 닭 사육농가는 1만7천986가구에서 724가구로 96%나 감소했으며, 한우와 젖소, 돼지 사육농가는 각각 51%, 57%, 65%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 사육 가축수는 같은 기간 2천639만여마리에서 3천52만1천518마리로 16%(413만781마리) 늘어났다. 가축별로는 한우와 닭이 13%와 17% 늘어난 반면 젖소와 돼지는 14%와 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축산농가가 감소한 것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불안감과 급격한 도시화, 주민들의 악취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규모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축산업 포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50마리 미만의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 1천마리 미만의 돼지 사육농가, 3만마리 미만의 닭 사육농가는 가축별로 85~99% 감소했다.

도는 이같이 사육농가가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축수가 증가한 것은 축산농가가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 '2009년 가축통계조사' 실시

인천 부평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관내 가축의 사육규모, 성별·연령별 마릿수 및 사육 현황을 파악하여 가축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사업 구축 등 각종 축산시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9년 부평구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동물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과 개(애완견 포함), 토끼, 관상조류, 오리, 벌, 사슴, 오소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하여 실시하며, 가축

통계조사요원이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조사하게 된다.

용인시, 가축방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용인시가 정부합동평가 가축방역 포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축방역 특별포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해 시·도,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방역 추진실적을 평가해 포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방역 추진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정부합동평가단은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AI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자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가축방역시책 평가자료 활용, 시·군 우수사례 발굴, 소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닭뉴캣슬병 등에 대한 방역 추진실적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상으로 1천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그동안 시는 매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질병 발생우려가 높은 시기에 축종별 전문수의사를 동원해 예찰과 임상관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강원도

가금류 농가 신종플루·AI 방역체계 강화

강원도는 지난달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실태를 일제점검하고 신종플루와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를 재점검했다.

도는 소독시설 설치여부, 소독기록 여부, 농장 출입구 발판 소독조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는 10월부터 AI 방역 강화 체제로 전환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주간 단위로 예찰과 함께 닭·오리 야생조류 등 4,700여건을 검사한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난 11월 17일 밝혔다.

삼척시, 가축방역 전국 우수기관 선정

삼척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전국 가축방역시책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1월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소브루셀라병 검진 및 발생감소,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 항체 양성률, BSE 검사실적 등 주요 가축방역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튀김닭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허용기준치 이하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튀김 닭은 안전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10월 관내 닭튀김 전문점을 대상으로 표본 수거한 튀김닭

100건에 대해 산가, 과산화물가,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의 함량 조사결과, 법적 허용기준치 및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고량을 밑돌았다고 지난 11월 1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튀김닭에서 추출한 기름의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각각 0.6~4.9(평균 1.8)와 1.5~10.9(평균 4.4)로 측정돼 모두 법적 허용 기준치인 5.0 및 60.0 이하로 조사됐다.

또 튀김닭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트랜스지방 함량은 각각 73.2~139.7(평균 105.0㎎/100g)과 0.04~1.64(평균 0.17g/100g)로 측정돼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 이하(콜레스테롤 300㎎, 트랜스지방 2.2g(2,000㎉ 기준)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당진군, 전국 가축방역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당진군이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실시한 지자체별 가축방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당진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시·도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연말기관표창과 함께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특히 당진군은 지난 2005년, 2006년 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방역소독시설과 예방약품을 지원하고 읍면별로 52개 자율공동방제단을 편성해 소규모 축산농가 3천150호에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안간힘을 쏟아온 결과로 풀이된다.

홍성군, 외국산 치킨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홍성군 특사경전담반이 외국산 치킨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T치킨전문점을 적발해 철퇴를 가했다.

군 특사경전담반은 지난 10월 26일부터 중국음식점, 야식배달업체, 치킨 및 피자 배달업체 등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및 위생관리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내산 생닭만 판매한다는 광고와 다르게 외국산(브라질) 닭을 판매하는 T치킨전문점을 적발하고 해당업체 본사관할 지자체 및 기관에 통지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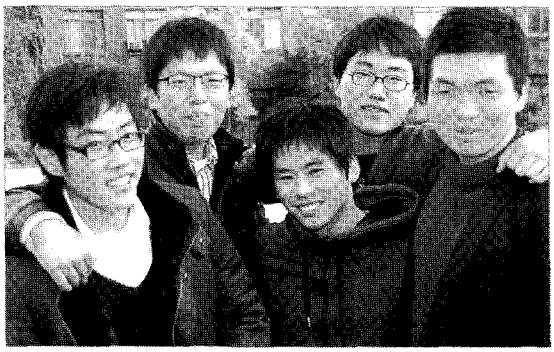
전국적인 체인점망을 구축하고 있는 T치킨전문점은 자사 홈페이지 및 광고 전단지에 "100% 국내산 생생 닭고기"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었으나 이번 허위표기 판매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지역주민에게 충격이 주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적발 건은 광고와 실제 납품되는 원재료가 상이한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군은 다른 치킨 전문점과 기타 배달음식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위반이 우려되는 치킨, 족발, 보쌈, 돈가스 등 배달전문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홍성군 특사경전담반은 맞춤형 테마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정착은

물론 서민 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닭 키워 번돈 학교발전기금 기탁



충남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발휘해 닭을 키워 번 돈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 동물자원생명과학과 재학생 5명(3학년 이종영 · 박노성 · 이문호 · 고태권, 2학년 경규하, 지도교수 조철훈)으로 이들은 학과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닭을 직접 키워 판매한 147만2천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이들은 평소 축산경영에 관심이 많아 의기투합해 지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청양에 위치한 동물자원연구센터에서 40여 일간 400마리의 닭을 키웠다.

이들이 키운 닭은 1.6~1.9kg으로 보통 닭(1.5kg)과 비교해 품질이 우수해 교내에서 예약판매를 통해 5시간 만에 모두 팔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학생들은 평일에도 수업이 끝나면 동물자원센터를 찾아 닭을 돌봤고,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하루종일 양계장에서 머물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노성씨는 "병아리를 직접 구입해 닭으로 키워내는 과정을 경험해 보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수업 중에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해 보람도 컸다"며 "더욱이 판 돈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니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농가에 생균제 무상공급

음성군이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균제 공급시설을 갖추고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1월 6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물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센터 내에 지상 2층, 건축면적 399㎡ 규모의 친환경 관리실을 신축하고 이날 준공식을 열었다.

이곳에는 생균배양기를 비롯해 고압멸균기, 액비배양기, 혼합기, 포장기 등 30여종의 배양시설을 갖추고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축산농가에 연간 120톤의 생균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생균제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의 미생물로 만들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혼합균 형태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생균제는 가축에 해로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섭취한 사료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줘 성장촉진과 사료효율을 개선해 주는 물질이다.

항생제와는 달리 축산물에 잔류 유해성분이 없

어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센터는 생균제 무상 보급에 따라 연간 4억원 정도의 미생물 제제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관리실 준공 및 가동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함께 가축 생산성 향상과 순환농업 실현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 논란

보은군이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하자 보은지역 축산업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예고 조례안은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중 주거시설 지역과의 거리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소, 젖소, 닭, 오리, 양, 사슴, 말 등은 주택(부지)과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 100m 이내가 제한되고 돼지, 개의 경우는 300m 이내에는 축사를 둘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에 반발해 보은축협과 관내 한우, 육우, 양돈, 양계협회로 구성된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10일 대책회의를 갖고 이 조례안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보은축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농업군인 보은군이 아직 도내 타 시·군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다 적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은군이 앞장서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조례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하고 반대시위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조례안을 추진한 보은군의회에 이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1월 10일자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 관계자는 "보은축협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으나 아직 간담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원군, 닭·오리 등 사육제한거리 완화

청원군은 닭과 개 등을 키우는 농가가 분뇨 배출시설 부지를 더욱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가축의 사육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월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 인구밀집지역(10가구 이상) 부지 경계에서 각각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축사를 신·증축해 사육할 수 있었던 닭과 개·오리는 300m 이상, 소와 젖소·말·양·사슴은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육할 수 있다.

돼지는 종전처럼 인구밀집지역 부지 경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육해야 한다.

군은 또 아파트 단지와 축산농가 간 거리 등은 악취 민원을 고려해 현행대로 1㎞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영주시, 농식품부 가축방역평가 최우수상 수상

영주시는 가축질병 근절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적인 방역활동과 성과가 높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2009년 가축방역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소 브루셀라병, 돼지 열병, 검진율·발생률·감소율, 소 해면상뇌증(BSE) 검사실적, 돼지 열병 항체양성률, 닭 뉴캐슬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가축혈정검사·병성감정 실시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으며, 2005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

친환경축산물 인증 1만1천농가 달성

전라남도가 친환경축산 및 녹색축산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확대해 2012년까지 친환경 축산물 인증 1만1천호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농가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20일 농업기술원에서 농가, 시·군 축산업무담당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입 축산물의 차별화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시장 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실무 요령과 자연순환형축산 사례 소개를 통한 농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종별 친환경 인증 목표를 확대 설정, 체계적인 친환경 녹색축산 실천을 유도해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의 70% 수준인 1만1천호를 2012년까지 인증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현재 전남도내 인증 축산농가는 1천322호로 전국(3천370호)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다.

형태별로는 유기축산물 2호, 무항생제축산물 1천320호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1천20호, 젖소 35호, 돼지 41호, 닭 102호, 오리 100호, 산양 등 기타 24호다.

연말까지 3천호(전국 대비 44%)를 달성하고 2010년 5천호, 2011년 8천호, 2012년 1만1천호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010년 축산정부정책지원사업에 대해 인증 받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 획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가 미흡한 만큼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 및 광역화 하는 한편 대도시 수요처 발굴, 전문 유통 업체와 협력강화 등 지속적인 판로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기술연구소, AI 예찰 강화로 발병위험 최소화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방지 및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해 예찰검사를 강화한 결과 아직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3일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는 도내 전체 오리농가(종오리 및 육용오리)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250농가 8천916건을 실시했고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금(닭, 오리)사육 430농가 9천712건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실시

하고 있다.

특히 올 11월 중순부터 국내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하고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해외에서 돼지와 조류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확인되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실시중인 AI 예찰검사 뿐만 아니라 메추리, 꿩 등 기타 가금류와 도축장에 출하되는 오리에 대해서도 AI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내 철새 도래지 6개소에서도 야생조류 분변검사 등 연말까지 AI 예찰검사에 총력을 다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찰검사는 북방 철새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시기에 동절기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취약해지고 축사 내 밀집사육과 환기불량 등으로 가금류가 환경조절능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AI 바이러스 유입여부를 집중 검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은 매년 10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가축방역시책분야 전국 최우수

고흥군이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가축방역시책분야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가축방역시책추진 실적에 따라 평가한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특별포상평가에서 고흥군은 대동물, 중동물, 소동물의 3개 분야 8개 시책에서 추진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기관표창과 포상금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가축방역 예산확보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고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율 100% 및 전국평균 대비 농장 감염률 최상위, 돼지열병 발생률 0%과 항체양성률 95% 이상,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처분실적 100%, 닭 뉴캣슬병 미발생, 예방접종 실시율 95% 이상, AI 방역대책 추진실적의 평가시책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축방역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서귀포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방역시책 추진상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1월 3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소, 돼지, 닭 등의 질병에 대한 3개 평가지표와 자체 방역 추진실적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로부터 인센티브로 상금 1,000만원과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말경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추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축산사업장 소독실태 지도 ·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